

김세중 연구위원, 김유미 연구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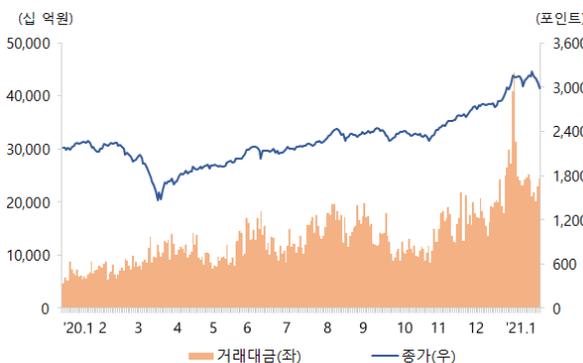
요약

2020년 말 주식시장 급등과 함께 2020년 12월과 2021년 1월 변액저축성보험 월별 해지율이 큰 폭 상승함. 변액저축성보험 해지 증가는 주식 직접투자를 위한 자금 이동, 수익 확정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. 변액저축성보험은 장기 보장수단에 가깝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에 따른 해지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음. 생명보험회사는 변액보험 가입자의 장기유지를 위해 수익률 개선 등 서비스를 강화하여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

○ 2020년 말 주식시장 급등과 함께 2020년 12월과 2021년 1월 변액저축성보험 월별 해지율이 큰 폭 상승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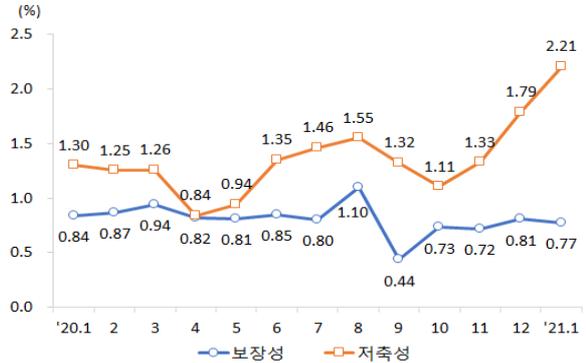
- 2020년 초 2,200선에 머물던 코스피지수는 2020년 3월 1,400대까지 폭락한 후 반등하였고 11월부터 재차 급등하기 시작하여 1월 7일에는 3,000선을 돌파함
- 코스피지수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2020년 11월 이후 변액저축성보험(변액연금보험과, 저축성 변액유니버설보험) 월별 해지율은 2020년 12월과 2021년 1월 각각 1.79%, 2.21%로 급증함
 - 2020년 1월에서 11월 사이 변액저축성보험 월별 해지율은 0.84~1.55% 수준의 변동을 보임
- 같은 기간 변액보장성보험(변액종신보험과 보장성 변액유니버설보험) 해지율은 변액저축성보험과 달리 큰 변동이 나타나지 않음

〈그림 1〉 주가지수 및 거래량 추이



자료: KRX

〈그림 2〉 변액보험 종목별 해지율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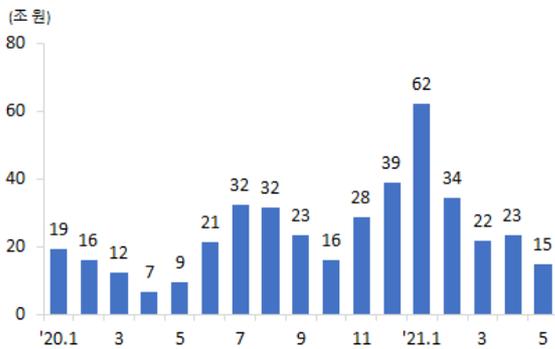
주: 월별 해지율은 (해지 및 효력상실 건수)/(월초 보유계약 건수 + 신계약 건수)로 계산함

자료: 생명보험회사, 업무보고서

○ 한편 국내 주식형 펀드 월별 해지규모 또한 2021년 1월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고 같은 기간 주식시장 고객예탁금은 68조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점으로 볼 때, 주식 직접투자를 위한 자금 이동도 저축성 변액보험 해지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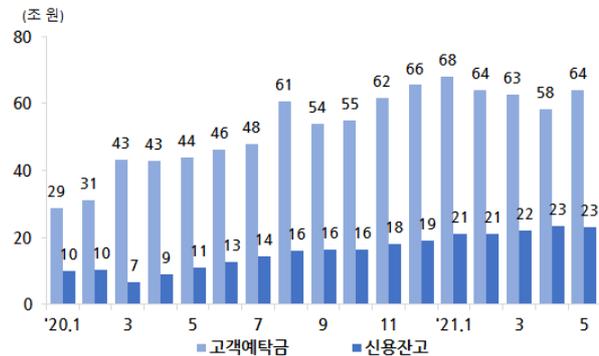
- 최근 국내 주식형 펀드 월별 해지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코로나19의 확산시기 최대 32조 원 수준이었으나 2020년 12월과 2021년 1월 각각 39조 원, 62조 원으로 크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
- 반면 주식 직접투자를 위한 고객예탁금은 2020년 12월과 2021년 1월 각각 66조 원, 68조 원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, 이는 변액저축성보험과 펀드를 해지한 자금이 직접 주식투자를 위한 고객예탁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음
- 2020년 8월에도 고객예탁금이 전월 48조 원에서 61조 원으로 급증하면서 변액저축성보험 해지 건수 및 국내 주식형 펀드 해지규모가 모두 상승하였으며, 주식 직접투자 수요 증가와 펀드 및 변액저축성보험 해지는 유사한 움직임을 보임

〈그림 3〉 국내 주식형 펀드 해지규모 추이



자료: 금융투자협회

〈그림 4〉 주식시장 고객예탁금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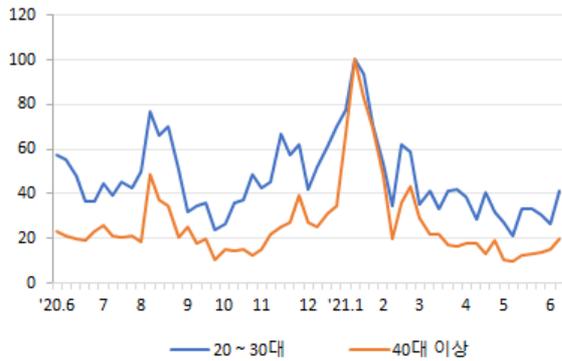


자료: 금융투자협회

○ 한편 최근 1년간 ‘변액보험 해지’ 검색량 추이를 20~30대, 40대 이상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2020년 12월과 2021년 1월, 40대 이상에서 변액보험 해지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(〈그림 5〉 참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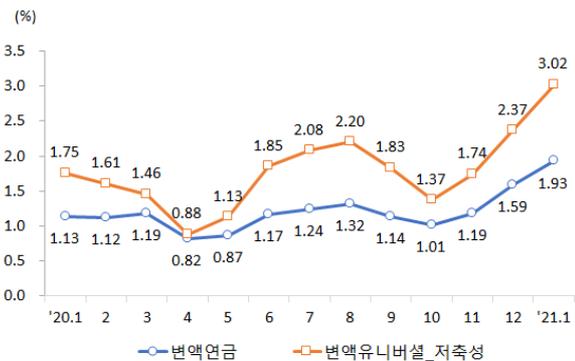
- 2016년 말 기준 변액보험 가입자는 20~30대가 43.6%를 차지하고 40대 이상이 56.4%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대별로 고른 분포를 보임
- 네이버 검색량 통계시스템인 네이버 데이터랩을 통해 지난 1년간 변액보험 해지에 대한 관심도 변화를 살펴보면 20~30대의 경우 2020년 12월과 2021년 1월 변액보험 해지 검색량이 이전에 비해 두 배 가량 증가하였으나 40대 이상의 경우 약 5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
 -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량 통계는 검색량이 가장 많은 일자의 검색량을 100으로 환산한 상대수치를 제공함
- 40대 이상의 변액보험 해지 관심 증가는 상대적으로 가입기간이 긴 가입자들의 이탈을 의미할 수 있으며, 그동안 변액보험의 성과가 개선된 후 수익을 확정하려는 동기 또한 해지의 원인일 수 있음

〈그림 5〉 연령대별 변액보험 해지 검색량 추이



자료: 네이버 데이터랩

〈그림 6〉 변액저축성보험 종목별 월별 해지율 추이



자료: 생명보험회사, 업무보고서

○ 변액저축성보험은 단기 투자수단보다는 장기 보장수단에 가깝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 이후 금융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에 따른 해지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음

- 변액저축성보험 중 소액의 사망보장 기능이 부가된 저축성 변액유니버설보험은 변액보험 중 펀드와 가장 유사한 형태이기 때문에 단기 투자상품으로 인식될 수 있음
- 변액연금의 경우 최저사망보증(GMDB), 최저적립금보증(GMAB) 등 다양한 보증옵션에 대한 추가 수수료가 부과되고 이들 옵션을 통해 사망 시 또는 만기 시 적립금 손실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투자수단보다는 장기 노후소득 보장수단으로 적합한 상품임
- 그러나 〈그림 6〉과 같이 2020년 12월과 2021년 1월 변액연금 월별 해지율은 이전 해지율 수준인 0.82~1.32%보다 높은 1.59%, 1.93%로 크게 증가함

○ 생명보험회사는 변액보험 가입자의 장기유지를 위해 수익률 개선 등 서비스를 강화하여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

- 금융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변액보험의 해지가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으나, 변액보험의 수수료 구조와 사망보장 및 노후소득보장 등 일반적인 펀드와 다른 특성을 감안한다면 장기유지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
- 생명보험회사는 변액보험의 장기유지를 위해 수수료 구조 다양화, 투자가능 펀드 확대 및 능동적 펀드 운용 유도 등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